적인선사탑, 곡성 지역 첫 국보로 '우뚝'

태안사 · 국가유산청 기념식
각초 스님 "지역 위상 높여"
"통일신라 대표 승탑" 평가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념식에서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국보지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전남 곡성의 대표 불교문화유산인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국보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 스님)는 4월 1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곡성 지역 첫 국보 지정을 축하하고, 불교문화유산의 위상을 고양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부주지 우석 스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본말사 주지스님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조상래 곡성군수, 권향엽·신장식 국회의원, 강덕구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국보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고승 적인 혜철 선사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으로, 86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3.17m의 팔각원당형 석조탑으로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돼 있다. 특히 지붕 모양을 형상화한 옥개석과 처마 곡선의 조형미, 섬세한 문양 조각은 통일신라 조각기법의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날 기념식에서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적인 혜철 선사 조륜청정탑의 국보 승격은 모두의 염원이 모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번 승격을 계기로 남북 화합과 국민통합을 기원하며, 유산 보존과 향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기념사에서 "통일신라 대표 승탑으로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있다. 이 중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상층부까지 완전하게 보존된 매우 희귀한 형태로, 조형성과 역사성 모두에서 국보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며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교 및 지역단체장의 축하도 이어졌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보 지정은 태안사가 전통불교문화를 온전히 간직한 문화도량임을 알리는 희소식"이라며 "각초 스님의 정진으로 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도 축사를 통해 "곡성군의 첫 국보 탄생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인선사탑을 널리 알리고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 청장은 각초 스님에게 국보 지정서를 전달했으며, 태안사에서는 국보 승격에 기여한 안선호 교수와 김기표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울산 태화강, 부처님 광명으로 밝힌다

4월 25~27일 태화강연등축제
봉축법요식, 음악회 등 '다채'
27일 연등행렬로 축제 대미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울산 태화강연등축제가 울산광역시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 주최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야광명(夜光明)'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불교문화축제로 진행된다.

4월 25일 개막식에는 태화영산회의 '태화사 부처님' 이운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과 봉축음악회가 진행된다. 봉축법요식에는 울산지역 스님들과 내외빈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어 열리는 음악회에는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과 고정우, 나상도, 정해은 등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4월 26일에는 명상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3시 '붓다어게인' 명상 콘서트에는 인디 뮤지션과 명상음악가들이 출연하며, 오후 8시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달빛걷기대회가 열린다. 걷기 참가자에게는 행렬등이 제공되며, 태화강을 따라 장엄한 빛의 물결을 연출한다. 이어 포시크루가 출연하는 '힙한 불교, 힙한 울산' 퍼포먼스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월 27일에는 오후 6시 30분 폐막식에 이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태화강을 출발한 행렬은 공업탑로터리를 지나 울산대공원 동문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현장에는 아로마·소리·시·선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불교 굿즈 플리마켓,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혜원 스님은 "빛과 명상, 그리고 밤이라는 세 요소를 결합한 '야광명'은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시민 일상 속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징"이라며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합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52-266-3318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각 국사 자비·화합 정신 계승"

진각국사 탄신 847주년 다례
4월 10일 전남 화순문화원서

고려 제2대 국사이자 화순을 대표하는 선지식 진각 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 1178~1234) 스님의 탄신 847주년을 맞아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

(사)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 스님)는 4월 10일 전남 화순문화원 강당에서 '제20회 진각 국사 탄신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선양회 대표 대현 스님을 비롯해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 류영길 화순군의회 부의장, 임지락 전남도의원, 임영택 화순문화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대현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진각국사는 고려 무신 정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수행과 포교에 헌신하신 선지식"이라며 "진각국사의 숭고한 수행정신과 소통, 화합의 가르침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치유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를 대신해 축사를 전한 이호범 부군수는 "화순에서 태어나신 진각 국사 혜심 스님은 고려 국사로서 왕에게 혜안을 제시하고, 분열된 불교계를 화합시켜 고려의 부흥에 기여한 위대한 스승이자, 화순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라며 "이번 다례재가 진각 국사의 포용과 자비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임탁진 사무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다례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일상 속 작은 수행이야말로 진각 국사의 가르침을 잇는 길이며, 이는 곧 불법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월인 스님 "세상 밝히는 군불자 되길"

승가종,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1600여 장병, 불자로 거듭나



승가종은 4월 5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열린 이날 수계법회는 승가종 종정 화산 월인 스님을 계사로 진행됐다.

월인 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계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며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계식 이후 월인 스님과 복천암 주지 무착 스님은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에게 군포교 활동을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합천 해인사, 산청 산불피해 기금 전달

4월 10일 산청군청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 주민 돕기에 나섰다. 해인사는 4월 10일 산청군청 군수 접견실에서 성금 7000만 원과 백미 5톤을 산청군에 기탁하며,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사진〉

주지 혜일 스님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 연대의 손길을 건네주신 해인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산 개심사, 제2회 개산 괘불예술제

개심사 개산 1371주년 맞아



서산 개심사(주지 혜산 스님)는 개산 1371주년을 맞아 4월 12일 경내에서 '제2회 개산 괘불예술제'를 개최했다.〈사진〉

증명법사로 참석한 우송 달하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세음보살을 한 번만 불러도 마음이 정화된다. 호명 그 자체가 수행이며,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며 "개심사, 즉 '마음을 여는 도량'에서 괘불 앞에 선 모든 이가 스스로의 본성을 비춰보길 바란다"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개원 7주년 기념법회

은암문화재단 5주년 겸해…장학금 전달도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은 4월 12일 동림선원 3층 대법당에서 개원 7주년 및 (재)은암문화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신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재)은암장학회는 지역 인재 6명에게 총 6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예산불교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4월 11일 예산군청서



예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효성 스님)가 4월 11일 예산군청 본관 입구에서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예산불교사암연합회장 효성 스님(향천사 주지)을 비롯해 최재구 예산군수, 윤승구 예산경찰서장, 강승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신 스님은 축사를 통해 "자비는 미움과 갈등을 녹이고, 연등은 어둠을 걷어내는 희망의 빛"이라며 "이 연등의 행렬이 예산을 넘어 사바세계를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읍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4월 11일 연지아트홀서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는 4월 11일 정읍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정읍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연등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이 등불이 이웃과 지역사회에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와 평화가 충만한 정읍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원 스님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35사단 봉축 점등식

4월 12일 수계법회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12일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에서 군장병 수계법회 및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 동참한 35사단 장병들은 전계아사리 경우 스님, 교수아사리 대원 스님, 갈마아사리 진성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수지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군 장병들이 수계와 점등의 공덕으로 건강한 병영생활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혜의 등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위원회, 봉축 점등식

4월 12일 전주역 분수대서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진성 스님)는 4월 12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은 점등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국민 모두가 마음속 등불을 밝혀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봉축사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로 보듬으며, 상생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성사암연합회, 연등문화축제

4월 14일 봉갑사서



보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각안 스님)는 4월 13일 보성 봉갑사 앞마당에서 '보성군민 화합한마당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사진〉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법문에서 "보성군민과 함께 밝힌 연등의 작은 불빛이 모여 보름달처럼 세상을 환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보성불교사암연합회장 각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3만 7000여 보성군민이 함께하는 이 자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